

고 강원용 목사님 추모의 말

강원용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뵈는 것은 지난 달 6일 헌법개정관련 아카데미 대화모임에서였고 그보다 앞서 우리사회의 양극화현상을 바로잡으며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원로모임인 희망포럼에서도 뵈었던 일이 생생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나 항상 그래오셨듯이 이 두 모임에서도 짧지도 길지도 않은 명확한 코멘트로 다양한 의견들을 힘이 실린 말씀으로 정리하여주셨는가 하면 희망포럼에서는 목사님께서 1960년대에 시작한 인간화와 양극화 문제를 대화로써 풀려고 애써 오신 경험을 피력하시면서 이 포럼이 지향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노력을 격려하여 주시는 일 등에서 목사님의 건재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고 있던 터에 신체의 모든 기능이 소진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갑작스런 비보는 언제나 달려가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고향을 잃은 텅 빈 마음과 함께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격동기를 사신 걸어 다니는 현대사로서 역사를 꿰뚫고 계시며 오늘을 바로 진단하시고 동시대보다 앞서가는 비전으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1959년 한국 기독교사회문제연구회로 출발한 크리스찬아카데미의 대화모임을 통해 오늘의 민주사회의 기틀을 마련하셨고 1974년부터 시작된 중간집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목사님께서 열린 생각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의 굵이마다에서 모든 부문의 앞서가는 쟁점들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특히 여성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 중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 시민운동가, 학계전문가, 고위행정가, 정치인, 장차관,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여성발전을 이끄는 많은 여성들이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과정을 거친 분들입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다양한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여성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준비된 인재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여성의 참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대의 목사님의 여성에 대한 배려는 한국여성운동의 주춧돌이며 원동력이었다고 인정하며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6.25 동란 중 부산 천막교실에서 대학생활을 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학생들은 목사님을 인기 있는 성서연구지도자 또는 명 강연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의 한 학생으로서 졸업 후에는 경동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YWCA의 실무자로 일하는 관계로 한국기독교사회연구회 창립 시에는 감사직을 맡은 바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종교관계, 시민사회 관련 문제, 여성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년애 심혈을 기울이신 평화포럼에도 이사로 참여하게 하시는 등 최근 세상이 중시하고 있는 평생

교육의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기회는 아카데미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실천해오셨습니다. 그 덕으로 목사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표하신 성평등사회와 평화통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창조적 변혁의 시동자이신 목사님을 잃게 된 우리의 안타까움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지난 40여 년간 키워내신 각 부문의 지도자들이 목사님의 후신들로서 남겨놓은 위업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각자의 몫을 다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편히 쉬십시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